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 완화로 6월 미 소매 판매 증가
- Bloomberg: 옐런 장관, “고용 열기 식어 디스인플레이 압력 작동”
- CNN Business: 연준, 금리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논쟁중
- WSJ: 미국 기업들, 글로벌 최저세 협정에서 부분적 ‘연기’ 혜택 받다
- WSJ Real Time Economics: 세일 업계 시추 장비 줄인다 - 기업 매출 감소에 수익은 더 감소 - 공급망 회복..포드 픽업 가격 인하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하락... 트레이더들의 연준 금리 인상 베팅 탓
- WSJ: 모건 스탠리 실적 ↓ 뱅크오브아메리카 ↑

[미중 관계]

- Bloomberg: 미국 “2024년까지 중국 기술 투자 한도 줄인다”

[전기차/반도체]

- The Economics: 중국 배제한 배터리 공급망은 ‘불가능’
- WSJ: 중국 칩 판매 제한, 역효과 가져올 수 있다
- Bloomberg: Stellantis “수요 급증으로 칩 부족 위험성”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업무 집중력 향상시키는 7가지 팁
- WSJ: 빅4 회계법인, 팬데믹 이후 컨설턴트 인력 줄였다
- CNBC: 급증하는 냉동 식품 수요, 냉장 공급망 압박할 수 있다

[보고서]

- [Goldman Sachs: Insights for KOCHAM members from Goldman Sachs \(GS가 코참 회원사를 위해 특별히 제공한 보고서들\)](#)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Retail Sales Rose in June as Inflation Eased

인플레이 완화로 6월 미 소매 판매 증가

- 미국인들의 6월 소매 지출이 늘었다.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임금이 오른 상태다.
- 소매 판매는 소매점, 온라인, 식비 등을 포함하는데 5월에 비해 계절 조정치로 0.2% 올랐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 4월과 5월에도 크게 올랐었다. 5월의 증가율도 당초 발표된 증가율 0.3%에서 0.5%로 수정되었다.
- 임금 인상도 강한 상태로 둔화되는 인플레이율을 상회했다. 소비자들이 6월에 지출한 품목은 가구, 전자 제품, 온라인 쇼핑이었다. 반면에 지출이 줄어든 것은 그로서리, 가솔린, 하드웨어, 스포츠용품이었고 술집이나 식당 지출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WSJ 기사

Bloomberg: Yellen Sees Disinflation Pressures at Work as Hiring Surge Fades**옐런 장관, “고용 열기 식어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작동”**

- 옐런 연방재무장관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생각되는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 옐런 장관은 “기업의 고용 수요가 낮아졌다”며 “노동시장과 연결된 어떤 실제적인 고통이 없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생각되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이다.
- 또다른 인플레이션 개선 요인으로 주택 비용과 자동차 비용, 기업 수익 마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The Fed is debating getting rate hikes out of the way sooner**연준, 금리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논쟁중**

- 일부 연준 관리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번 달부터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 연준의 매파라 할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 은행 총재인 James Bullard가 8월에 사임할 예정이며 비둘기파인 경제학자 Adriana Kugler가 상원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의장의 영향력이 중요한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로 연준은 내부의 일부 논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데 6월 금리 인상도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한동안 7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지만, 9월 연준의 결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그때까지 많은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U.S. Companies Score Partial Reprieve From Global Minimum Tax Deal**미국 기업들, 글로벌 최저세 협정에서 부분적 ‘연기’ 혜택 받다**

-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세 협상에서 두가지 조항에서 구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연기하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미 재무부가 협상한 업데이트된 합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2026년까지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2026년까지 추가로 1년더 여유 기간을 갖게 된다.
- 그리고 작년 IRA법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일부 기업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되어 세액 공제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WSJ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세일 업계 시추 장비 줄인다 - 기업 매출 감소에 수익은 더 감소 - 공급망 회복... 포드 픽업 가격 인하

[세일 업계 시추 장비 줄인다]

- 세일 업계는 유가 호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시추 장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동안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매출 감소에 수익은 더 감소]

-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때 기업들이 원가 상승률 보다 더 빠르게 인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수익 마진이 무너지고 있다.
- 기업들이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어닝 시즌에는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회복... 포드 픽업 가격 인하]

- 포드사는 어제 월요일 전기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의 가격을 최대 17%까지 인하했다. 1만달러 인하한 4만 9천 9백 95불.
- 이런 조치는 재고 증가와 치열한 경쟁 때문인데 회사는 가격 인하를 재료비 절감과 공장 생산량 증가 결과라고 답했다.

[미국 금융]

Bloomberg: US Stocks Drift as Traders Lock in Fed Rate Bets 미 증시 하락... 트레이더들의 연준 금리 인상 베팅 탕

- 최근 일련의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데다 트레이더들이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채권은 랠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 S&P 500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Bank of America Corp와 Morgan Stanley 실적이 엇갈리면서 하락했다.
- 한편 정책 결정자들의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올해 두 차례 더 0.25%씩 올릴 중앙값 기대치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WSJ: Morgan Stanley's Profit Falls, Hurt by Lower Trading Revenue 모건 스탠리 실적 ↓ 뱅크오브아메리카 ↑

- 모건 스탠리 2분기 수익은 작년 동기 비교해 13% 떨어졌다. 화요일 수익이 21억8천만불, 즉 주당 1달러 24센트라고 발표했다.
- 이같은 수익 하락은 투자 은행과 트레이딩과 같은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비즈니스가 여전히 침체 상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 고금리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기업 경영진이 거래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회사를 상장하지 못하고 있다.
- 반면에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리 상승후에 대출 수익이 늘어나 높은 수익과 매출을 기록했다.
- 이 은행 CEO인 Brian Moynihan은 “우리는 탄력적인 고용 시장과 함께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미국 경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미중 관계]

Bloomberg: US Plans Narrow China Tech Investment Limits, Likely by 2024

미국 “2024년까지 중국 기술 투자 한도 줄인다”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과 신규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중국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선별하고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는 중국 투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아니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전기차]

The Economist: A battery supply chain that excludes China looks impossible**중국 배제한 배터리 공급망은 ‘불가능’**

-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개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 또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의 공급이 매년 3분의 1씩 10년간 증가해야 한다.
- 이런 상황 가운데 배터리 금속 가공, 배터리 셀 생산, 완제품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 중국이다.
- 배터리 주 재료인 리튬과 니켈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작년 리튬의 절반은 호주, 칠레 30%, 중국에서 15% 생산 되었다.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 48%, 필리핀 10%, 호주가 5%를 차지했다.
- 지금까지 미국은 광물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생산자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은 병행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중국은 전 세계 니켈 약 4분의 3을 가공 한다. 또한 리튬 처리 용량 약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총 용량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부품 생산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량 절반 이상을, 일부 품목에서는 70% 이상을 차지한다. 동아시아 3개국이 배터리 산업 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100%이다.
-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 번째로 큰 배터리 제조업체이다. LG는 2030년까지 278gwh 상당의 저장 용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12 gwh에 불과했다. 하지만 건설 비용 상승, 인력 부족, 배터리 재료 가격의 변동성 등이 이 회사 성장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The Economics 기사

WSJ: Restricting Chip Sales to China Could Backfire on U.S., Industry Group Says**중국 칩 판매 제한, 역효과 가져올 수 있다**

- 중국 첨단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칩 제조 신규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칩 산업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가 월요일에 말했다.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칩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을 해킹과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업계가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이라

는 것.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부터 미국 칩 제조 공장에 390억 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tellantis Sees Severe Risk of Chip Shortage on Demand Surge **Stellantis “수요 급증으로 칩 부족 위험성” 경고**

- 자동차사 Stellantis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 증가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공급 안전성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 Jeep의 반도체 구매 총괄 Joachim Kahmann은 차량 소프트웨어 기능이 급증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칩 공급 부족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년 동안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매우 다양해졌다. 더 복잡한 칩과 공통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에 칩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5~7개의 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Seven Tips for Helping Employees Warm Up to Hot Desking **업무 집중력 향상시키는 7가지 팁**

- 피드백 받기: 직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 보아라.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확인하고 시행하라.
- 규칙 만들기: 공유 리소스 사용 방법, 명확한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라. 올바른 행동 문화가 강화되고, 유연성이 발휘될 것이다. 모두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라.
- 팀원과 친해지기: 팀원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은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가 필요하다.
- 오피스 공간에 대한 재고: 책상만이 일하는 공간이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 협업 공간,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이 필요하다. 요즘은 화상 회의를 위한 장소도 필요하다.
- 더 나은 책상 구매하기: 높낮이 조절 가능 책상, 허리를 받쳐주는 의자, 밝기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 등 개인에 맞춰 조절 가능한 장비를 배치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외 인정하기: 사람들에게 개인 공간 제공을 고려해 보아라. 사무실 가구를 맞춤화 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WSJ 기사

WSJ: Big Four Accounting Firms Pare Their Consultant Ranks in Postpandemic Reversal**빅4 회계법인, 팬데믹 이후 컨설턴트 인력 줄였다**

- 빅 4 회계법인은 컨설팅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타사(the third party)의 지원을 줄이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Deloitte, Ernst & Young, KPMG, PricewaterhouseCoopers 회계법인은 지난 2년 동안 낮은 감원율과 높은 고용을 유지했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컨설팅 수요가 증가 했기 때문이다.
- 최근 감원은 주로 자문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KPMG는 6월에 자문, 세무, 백오피스 직원을 포함해 약 5%를 해고 했다. Deloitte는 4월에 1.5%, EY는 5%를 감원했다.
- 또한 퇴사자도 증가하고 있다. 빅 4 회계법인은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약 5만 6천 명이 퇴사했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이다.

WSJ 기사

CNBC: Surging frozen food demand may stress critical cold storage supply chains**급증하는 냉동 식품 수요, 냉장 공급망 압박할 수 있다**

- 거의 모든 미국 가정에서 냉동 식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탄력적인 냉장 공급망(유통망) 인프라가 없으면, 2,650억 불 규모의 글로벌 냉동 식품 시장 성장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소비자들은 더 많은 냉동 식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저장 능력과 효율적인 공급망이 필요할 것”이라고 The Food Institute의 CEO Brian Choi가 말했다.
- 미국 냉동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냉동식품 매출은 720억 불에 달한다. 또한 2020년 팬데믹 봉쇄 기간 냉동식품 판매액은 650억 불 이상이다.
- 냉동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선 정교한 공급망이 필요하다. 제품은 냉장 트럭과 냉장 보관 시설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 Columbia 기후 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냉동 식품의 약 13%가 냉장 공급망 부실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들]**Goldman Sachs: Insights for KOCHAM members from Goldman Sachs**
한글 요약을 포함한 각종 보고서들

- 미 침체 가능성 크게 낮아
- 생성형 AI 의 명과 암
- 미 인플레이 하락 이유들
- 미 설비 투자 성장 둔화 개선
- 투자와 생산 다시 성장세
- 2050 년 5 대 경제대국은?
- 여성 자원 활용
- 향후 주식 수익률은 보험세
- 미 경제 연착륙 이유는

Goldman Sachs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마지막은 언제?' 연준 기준금리 인상 앞두고 논쟁 심화****지표상으로 탄탄한 고용에 인플레이 하락...정책 효과 시차도 이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달 이후 추가 인상 필요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하면서 연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98.0%에 이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7/18/23, 1:01 PM

Constant Contact

Sent by office@kocham.org